

저 푸른 고흥에 그림같은 기념관 짓고 60년 노래인생 담다

21일 오후 가수 남진의 이름을 딴 '남진 트로트 기념관' 개관식이 고흥군 영남면에서 열렸다. 기념관은 지난 2019년 남진이 매입한 고흥 앞바다 일대 8000여㎡ 부지에 2층 규모로 들어섰다. 이곳에는 공연사진 아카이빙을 비롯해 무대 의상, 레코드판, 트로피 등 남진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.

/사진=최현배 기자 choi@kwangju.co.kr



추억의 LP판 그동안 출시됐던 다양한 음반들.



남진과 함께 남진 트로트 기념관 개관식이 21일 고흥군 영남리에서 열린 가운데 가수 남진이 전시장 공간에 사인을 하고 있다.



나야 나 참석자들에게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남진.



그때 그시절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.



영광의 순간들 진열장에 놓인 상패와 트로피 등에는 지난날의 발자취가 담겨 있다.



1982 - 2022

국제보청기 40주년

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!



국제보청기

“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”

- ✓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.
- ✓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.
- ✓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.

- 본점**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) 227-9940
062) 227-9970
- 서울점** 종로 5가역 1층 02) 765-9940
- 순천점** 중앙시장 앞 061) 752-9940